

# 대인야시장 '별장' 자생력 길러 홀로서기

셀러 교육으로 관람객 늘리고  
자율 봉사단 꾸려 운영비 절감  
한달 두차례서 매주 토요일 개최

2019년 정부·市 지원 중단 대비  
6일 올 첫 개장 맞아 체질개선 나서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이 6일 오후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올해 처음으로 개장한다. 별장은 이번부터 자율봉사단 운영, 셀러 교육 등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별장 모습. <별장프로젝트 제공>

야시장 '별장'이 열리는 날이면 대인시장은 발 디딤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셀러들이 파는 머리카핀, 향초 등 소소한 수공예품을 구경하는 재미부터 집에서 만든 쿠키나 마카롱 등 먹거리는 군침을 흘리게 한다. 곳곳에서 열리는 거리 공연에 눈길을 빼앗기는가 하면 출출해질 때쯤 길가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먹는 국수 한그릇 맛 또한 일품이다.

하지만 별장은 어느 순간부터 식상하다는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한두차례씩 5년간 열리다보니 '셀러들이 파는 상품이 거기서 거기다'는 인식이 생겼다. 또 별장이 열린 다음날 미처 치워지지 못한 쓰레기 때문에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2019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일 올 첫 개장을 앞두고 있는 별장이 체질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매월 두차례 이틀간(금·토요일) 열렸던 행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하고 운영시간을 올해부터는 1시간 더 연장해 오후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진행한다. 또 교육을 유료한 셀러들만 참여하도록 했으며 자율 봉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별장을 이끌었던 전고필 총감독을 필두로 사무국이 새롭게 꾸려졌다.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총감독을 맡으며 지금의 별장을 만든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별장사무국은 문체부 지원이 끝나는 2019년 이후를 대비해 이번 별장부터 조금씩 자생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고필 총감독은 "지난해까지 별장은 매년 1만명 이상을 끌어모으며 전국 대표 야시장으로 부상했다"며 "하지만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게 정부 지원이 끝나는 2019년에 무너질 수 있어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감독은 현재 취약점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술가 이탈 심화, 매년 비슷한 포맷으로 인한 관람객 피로감 상승, 쓰레기 등 시장상인들과의 갈등 등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셀러들은 '셀러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도화된 셀러들을 육성하고 별장을 같이 만들어나간다는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또 15명 내외로 구성된 '부영이 봉사단'을 운영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셀러, 사무국 직원, 시장상인, 일반인 등으로 꾸려질 봉사단은 청소, 주차관리, 매대 정리 등을 한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 외부인력을

동원했다.

특히 매회 운영비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4년(매달 1회)까지는 1200만원이 투입됐고 지난해(매달 2회)는 900만원이었다. 올해는 300만원이고 내년은 100만원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운영비를 최소화할수록 정부 지원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별장은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기간 진행된 '북덕방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대 작가들이 대인시장 내 비어 있는 점포를 저렴하게 임대해 작업실로 활용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2009년부터 문체부와 광주시가 10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사업'을 추진하며 '별장'이 시작됐다. 처음 100여개였던 매대는 지난해 150개로 늘고 등 대인시장은 별장을 통해 전국 문화관광형 예술시장 성공사례 첫손에 꼽혔다.

전 감독은 "셀러들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별장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법정이 생긴다"며 "별장은 2019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별장은 '실장보고 별장보고'를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특별히 시립국극단이 2월 한달간 별장에 참여해 풍물놀이 등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가와이 쇼자부로 의 생애와 예술세계



'퐁메'

### 광주시립미술관 2일~6월5일 하정웅컬렉션 전시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2일부터 6월5일까지 하정웅컬렉션 '가와이 쇼자부로-생의 흔적'전을 5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가와이 쇼자부로(92)의 1965~2006년 작품 60여점으로 선보이며 생애,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가와이 쇼자부로(河合勝三郎)는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원로작가이다. 평생 다양한 기법과 실험을 통해 동판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작가로 유명하다. 종이 대신 얇은 납판을 쓰며 입체감과 재질감을 극대화시켰고 구조도를 판화원판에 사용하는 독자적인 기법을 개발했다. 동판화 교육을 40여년 지속해 오며 제자를 1000여명 이상 배출하기도 했다.

작가는 구조도, 납, 동판, 아연판,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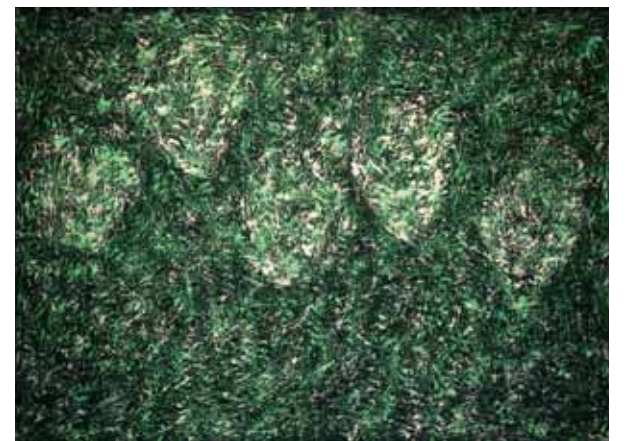
등 재료의 물성을 온전히 파악하고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테크닉을 보여준다. 판화에서 발생하는 우연성을 필연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독자적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평생 예술 주제는 '생명'이다. 작품 '괘적의 시', '퐁메', '흔적' 등은 구조도를 끊어낸 자국에서 두터운 질감이 거트 보인다. 때로는 힘차고 거칠게, 때로는 적막하게 삶에서 맛따르려는 모순과 상처, 아픔 등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또 투명하고 화려한 색채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담았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고려인 관계로 작가는 참석하지 못하고 제자와 가족 등 10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통 염색과 현대 회화의 만남



### 광주 롯데갤러리 4일~3월1일 설맞이 기획 김현덕 개인전

전통 염색과 현대 회화를 접목하고 있는 김현덕 작가가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불과 바람의 흔적을 그리다'전을 4일부터 3월1일까지 개최한다.

설맞이 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자연에서 채집한 천연 염료로 물들인 염색 천 위에 전통채색을 가미한 대형 회화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 '불과 바람의 흔적을 그리다'에서 '흔적'은 하늘, 땅, 바람 등 만물이 고유한 색과 내용 등 화폭 위에 남긴 자취를 의미한다. 작가는 일반적인 캔버스 천 대신 식물 뿌리, 쪽, 치자, 감 등으로 염색한 무명천을 기본 화폭으로 삼았다. 염색과 건조를 반복해 의도치 않은 구겨짐과 독특한 미감을 보여준다.

김씨는 "주제는 2014~2015년을 살면서 내가 생생히 살아 있다고 느낀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며 "만물에는 고유 색과 빛이 있으며 관람객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색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미학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바람이 다·자유 다·서성이 다'(2012)·'열정과 고집'(2009) 등 개인전에서 독특한 염색 작업을 보여줬다.

한편 롯데갤러리는 20일 오후 3시 관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작품 시연회, 핸드페인팅 체험을 진행한다. 설날인 7~8일은 휴관한다. 문의 062-221-18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립국극단 대인시장 '별장'서 2월 한달간 정기 공연

광주시립국극단이 대인시장에서 열리는 '별장'에 2월 한달간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국극단은 올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매주 별장에 참여, 판소리, 북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6일 열리는 올 첫번째 행사 때는 정선심·이명식·김삼진씨가 판소리를 선보이며 13일에는 박애화·이명식 단원이 단가와 판소리를 들려준다. 또 20일에는 국극단

전단원이 참여, 지신밟기와 북춤, 민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27일에는 이복순·김준영·김삼진씨가 공연한다.

지신밟기 등은 16일 양동시장, 17일 아시아문화전당 5·18 광장과 예술의 거리에서도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한편 국극단은 4월 28~29일 충무공탄신일을 기념해 장극 '이순신, 12척의 배'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대한민국은 복고 열풍  
추억을 타고 번지는 복고 트렌드

새롭게 부르는 '그때 그 노래'  
'오뎅으로 읽는다' 그들은 필사 중  
애호가들과 '만장의 LP' 나누는 DJ 박태진씨

명절되면 설레는 무한홀릭 홈쇼핑  
안방쇼핑의 룩션 스타, 국내 1호 쇼호스트 유난희

**대한민국은 지금 복고 열풍**

추억을 타고 번지는 복고 트렌드

새롭게 부르는 '그때 그 노래'  
'오뎅으로 읽는다' 그들은 필사 중  
애호가들과 '만장의 LP' 나누는 DJ 박태진씨

자상에 귀한 가르침 새기고 떠난  
故 신영복 교수 삶과 철학

노중훈의 꿈의 여행②  
불가해한 공중도시,  
페루 쿠스코 & 마추픽추

회가의 직업실  
사회성담은 신문 클라주  
작가 최요안

문화 단정  
사랑받는 문화재단의  
공간과 전시들

**예향 초대석**

왕성한 강연과 집필,  
97세 현역 철학자 김형석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일이에요"

남도의 장인들④  
국내 유일의 접선 장인  
접선장 김대석

사람이 브랜드다④  
군산항에서 흘러나온 풍자와  
해학의 '특류'  
군산 & 작가 채만식

스물네 예술교육원장을 찾아서①  
여수 예술마루가 진행한  
행복한 예술 멘토링

문학 화제  
2016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의 문학이야기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④  
추억과 삶의 예술이 있는  
양림동 펜션마을

문학 화제  
새롭게 만나는  
광주의  
문화공간들

스타 데이트  
"대본의 마라에 사로잡혔어요"  
'응답' 후속 '시그널' 주연 맡은 김혜수